

[사회]

28일 개통 광주~무안 고속도로 미리 가 보니



공정률 98%를 보이고 있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가 오는 28일 미개통 구간의 공사를 모두 마치고 5년6개월 만에 전면 개통된다.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동광산 영업소 주변 곡선 구간으로 멀리 호남대 건물이 보인다. /인한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 출발 25분만에 서해 바다가 보인다

무안공항까지 논스톱 연결 '편리'

광주시와 무안국제공항을 잇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총연장 41.3km)의 전 구간 개통이 임박했다. 지난해 11월 8일 무안~나주 30.35km 구간을 먼저 개통했던 이 도로는 현재 미개통 구간인 광주~나주 10.95km에 대한 방음벽 설치와 차선 긋기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전체 공정률은 98%. 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측은 오는 28일 오후 7시를 기해 별다른 행사 없이 고속도로를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총공사비는 6천107억원. 지난 2002년 12월 착공 이후 5년6개월만의 완공이다. 광주에서 25분을 내달리면 서해 앞바다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지난 16일 광산구 운수동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초입. 도로에는 중앙분리대와 공사차량이 마무리 공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왕복 4차선 도로 시공을 시작했다. 먼저 첫 번째 터널이 눈앞에 들어왔다. 광산구와 호남대가 '어등산 터널'과 '호남대 터널'이란 명칭을 주장하며 논란을 벌이고 있는 문제의 터널이었다. 광산구 용곡동에서 운수동에 이르는 5.8km 구간은 호남대와 모 본종의 민원으로 노선이 변경되고, 국비가 확보가 늦어지면서 공사가 3년여동안 표류하기도 했었다. 전 구간 9개의 터널 중 1천485m로 가장 긴 이 터널은 황룡강교와 곧바로 연결됐다. 지상 50m 위에 건설된 다리 오른쪽으로는 황룡강이, 왼쪽으로는 상무지구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도로가 완전 개통될 경우 대형차량 운전자가 아니면 가드레일에 시야가 막혀 이런 광경을 보기 힘들 것 같았다. 동광산 영업소를 지나 긴 곡선 구간을 두어 군데 통과하자, 미개

통구간의 끝인 나주 나들목이 보였다. 이미 개통된 나주~무안 구간으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이어 500m~1km 간격으로 뚫여진 문령 1터널~5터널 구간을 지나자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한 대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다. 고속도로는 무안공항 2층 대합실 입구까지 연결돼있다. 차에서 내리면 곧바로 공항 안으로 들어설 수 있는 구조였다.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광주~전남지역발전에 유·무형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 무안공항까지 1시간이었던 운행 시간이 25분으로 단축됨에 따라 연간 2천813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첫 번째 효과다. 또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도로로 유명했던 광주~목포간 국도 1호선의 차량 소통량이 줄고,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서남권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광산~무안공항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2천500원이다. /인한주기자 ahj@kwangju.co.kr

순천 전공노 파면·해임 부당 판결

광주고검 반발, 항소기로

광주고검은 19일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순천시가 공무원 7명을 파면·해임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광주지법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광주고검 관계자는 "파면·해임된 공무원들의 위법활동 자체가 명백하고 전공노 활동을 이유로 파면·해임하는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20일 관할 행정청인 순천시에 항소하도록 지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항소기한인 오는 21일까지 광주고검 정부에 항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행정부는 이모 씨 등 전공노 순천시지부 간부 7명이 지난해 합법노조로 전환되기 이전에 노조활동을 한 것은 공무원의 본분을 막대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면서 파면·해임조치는 부당하다고 지난달 24일 판결했다. /최권일기자 cki@/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미궁에 빠진 '고속도로 의문사'

사망 원인 못 밝혀

지난달 27일 경기도 제2중부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광주 S고교 선후배인 김모(50·이비인후과 의사)·박모(48·골프 의류 판매업)씨 변사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경찰은 약물중독에 의한 사고사여 무게를 두고 수백 종의 약물검사를 벌였지만 성과는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변사자들의 구토물과 드링크 등에 대해 감정을 벌인 결과 확인된 약물 성분은 졸피뎀과 클로타이제팜 등 2종류로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용도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들 약물이 치사량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이에 따라 제3의 약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제3의 약물 성분을 추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과수는 또 의국의 사례나 문헌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나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애초 20일로 잡은 1차 감정시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광주경찰은 2가지 약물 성분만으로는 사망할 수 없다는 국과수 의견에 따라 의사 김씨의 병원과 김씨가 이용한 신경정신과에서 진료기록을 압수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내용 조회 등을 통해 다른 약품을 구입했는지도 확인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연남뉴스

서울대 총학 "교수 강의평가 후 공개"

대학의 강의평가 공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가 학교 당국과는 별도로 자체 강의평가를 실시해 이를 사실상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전체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평가 결과를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 강의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학교 측이 현재 실시 중인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강의 만족도를 공개해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기획했다고 학생회는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서울대 구성원 인종 방

식을 이용해 평가 결과를 학생들에게 우선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개 대상과 범위를 점차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총학생회는 새 강의평가 시스템에서 현행 학교 측의 강의평가 문항을 보완하고 수강생이 강의 구성요소에 대한 항목별 평가뿐 아니라 총점을 부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총학생회는 평가 시스템에 대한 학내 반응을 살펴본 뒤 장기적으로는 이를 수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통로로 강의 내실화를 요구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는 교수 사회에 적지 않은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남뉴스

아침엔 '쌀쌀' 5월 20일 (음 4월 16일) ◇전국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including Gwangju, Seoul, and Jeju. Includes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천원권 지폐 겹재 정선 작품 등 위작" 서화감정학자 이동천씨 주장. Article discussing the authenticity of 10,000 won banknotes and calligraphy works, mentioning a specialist named Im Dong-cheon.

김밥 할머니 폭행 20대 용역직원 조사. Article reporting on an assault on a grandmother by a 20s employee at a restaurant, with details on the investigation.

Advertisement for KUNIE Q10 supplement. Features a smiling elderly woman and text: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and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Includes product image and contact info.